

연길시, ‘세계 독서의 날’ 맞아 일련의 활동으로全民독서 조력

4월 23일, 제 30 번째 ‘세계 독서의 날’을 맞아 연길시새시대문명실천 중심에서는 길림성신화서점그룹연길 시유한책임회사와 연합하여 연길시신 화서점문명실천기지에서 ‘독서 분위기 확산 속 독서 통해 성장 누리자’(书香四溢, 阅享成长)를 주제로 한 문명실천 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활동은 ‘실체서점 + 문명실천’ 모델을 보급하여全民독서 풍조를 육성하고 서향연길 건설을 조력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행사 현장에서 신화서점의 해설원이 연길시진학소학교에서 온 학생들에게 신화서점의 발전 과정과 문화 함의를 소개했으며 독서 장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증진시켰다. 동양사회구역의 ‘백성해설가’(百姓名嘴) 선전원은 또 학생들에게 ‘세계 독서의 날’의 유래와全民독서의 의



의에 대해 보급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평생 독서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제창했다.

활동의 재미와 소통을 높이기 위해 주최측은 책찾기놀이, 열독교류 등 코너도 마련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

거운 분위기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연길시새시대문명실천 중심에서는 진학소학교에 도서를 증정하여 교정의 독서 자원을 풍부히 했고 연길시신화서점에서도 진학가도 동양 사회구역에 민생 문화 독본과 도서구매권을 기증해 시민들의 독서 수요를 한층 더 만족시켜주었다.

연길시새시대문명실천중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서점 등 문화진지에 의거해 다양한 형식의全民독서 활동을 전개하고 문명실천과 독서보급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동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체험을 제공함과 더불어 연길시의 정신 문명 건설과 문화사업 발전에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가혜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세계 독서의 날’ 유래

‘세계 독서의 날’, 책 읽기로 독서의 힘 만끽

— 올해의 주제는 열독 : 미래로 통하는 교량

4월 23일은 제 30 번째 ‘세계 독서의 날’이다. 올해 ‘세계 독서의 날’의 주제는 ‘열독 : 미래로 통하는 교량’이다.

올해로 30 번째를 맞는 ‘세계 독서의 날’은 유네스코에 의해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에스빠냐 ‘세인트 조지 축일’(圣乔治节)에 얽힌 아름다운 전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전하는 데 따르면 아름다운 공주가 악룡에 의해 깊은 산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용사 조지가 험혈단신으로 악룡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냈다. 공주가 조지에게 답례

로 준 선물은 한권의 책이었으며 이때로부터 책은 담력과 힘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4월 23일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출생하고 사망한 날이다. 셰익스피어와 에스빠냐의 작가 세르반테스, 페루 작가 잉카 가르실라스 데 라 베가 모두 1616년 4월 23일 같은 날에 사망했다. 4월 23일은 또 미국 작가 나보코프, 프랑스 작가 드뤼옹, 이슬란드 노벨문학상 수상자 라스넥스 등 문학가들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날이 세계적 독서의 날로 지정된 것은 더욱 ‘명분’이 있어보인다.

/ 신화사 종합

[독후감]

© 리미화

과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여성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 가쿠다 미쓰요가 쓴 《종이달》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녀성 작가 특유의 섬세한 심리묘사와 은유적인 비유가 단번에 나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우메자와 리카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듯했으나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억압을 느꼈다. 지어 남편은 리카와 아무런 감정적 소통도 하지 않았다. 거기다 직장인 은행에서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걸맞는 인정이나 승진은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리카는 VIP 고객의 손자인 고타를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공허했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오래동안 느끼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고타와 불륜에 빠진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리카는 고타와의 채무에 두 사람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고객의 예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리카를

원하는 사람들과 주위 지인들의 주목을 받는 중심에서 리카는 차츰 자아를 잃어갔던 것이다. 리카는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공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의 리카의 심리변화 또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처음에는 단지 일시적으로 빚을 메꾸거나 금전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누렸지만 공금 금액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돈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던 것이다. 여기에 돈에 관련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리카의 주변 인물들도 등장하며 현실감을 더한다.

작가의 섬세한 심리적 묘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성에 대한 생각을 더 깊고 넓게 고민하게 되었다.

책의 제목인 ‘종이달’은 일본에서는 ‘련인이나 가족과 함께 보낸 가장

행복했던 한때’를 의미한다고 한다. 하지만 ‘종이달’은 절묘한 은유로서 허황된 상징이자 결국 다시 혼자가 되는 리카의 허무한 현실이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종이달’ 아래에서 물질적 풍요로움과 금전만을 좇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결국에는 구차하게 발버둥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행간을 읽을 수 있었다.

하여 ‘종이달’이 갖고 있는 진정한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역시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의 행복한 생활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단순히 돈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금전은 인간성을 비추는 거울이며 위선적이고 가짜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자신에 대한 구원은 외적 세계(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나 금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과 평온함을 찾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종이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은 열린 결말이라 독자들로 하여금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책을 덮은 뒤에도 인간성과 사회현실 및 녀성의 운명에 대해 사고하게 되며 금전적인 유혹으로 가득찬 이 사회에서 정확한 가치관과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되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녀성 인권에 대한 사건과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공평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나 자신부터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다지게 되었다.

‘세계 독서의 날’이 있는 4월은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청소년은全民독서의 생력군이자 청소년 독서는 또 일년에 한번씩 오는 ‘세계 독서의 날’이면 거론되는 인기 화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서를 즐기고 많이 읽게 하려면 고품질 열독 내용의 공급을 떠날 수 없다.

근래에 청소년들의 개성화, 다원화 독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제들도 뒤따른다. 아이의 책을 고르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이 있다. “어른이 고른 책은 아이가 보기 싫어하고 아이가 고른 책은 어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내용이 공허하고 줄거리가 비슷한 인터넷 소설을 너무 일찍 접하면서 ‘영양가도 재미도 없는 중독되기 쉬운 빠른 전개’의 문장’을 즐겨 읽는다고 하소연하는 교원들도 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부동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적합한 량질의 음성 독서를 많이 내놓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 독서의 량과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보다 다원적인 내용 공급으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습관을 키워주고 청소년들의 독서 체험을 높여주어야 한다.

열독 내용의 공급을 최적화하려면 청소년들을 위한 양호한 독서 생태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독서는 ‘떠먹여주는 것’이 아닌 ‘료리를 주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읽기를 강박하는 것은 역효과만 낼 뿐으로 아이의 내재적 취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관건이다. ‘나보고 읽으라고?’에서 ‘내가 읽을래’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평생 독서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독서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청소년의 성장 수요에 입각하여 그 인지발전 법칙과 정신성장 요구에 부합되는 독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다

른 한편으로는 비공리적이면서도 오락지상주의를 지양하는 독서를 격려함과 더불어 새로운 발견, 새로운 성취, 새로운 현상 등 새로운 지식을 담은 도서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진실을 추구하고 선을 지향하며 심미를 추구하는 가치 취향을 창도해야 한다.

열독 내용의 공급을 최적화하려면 디지털 독서 자원을 충분히 리용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청소년들의 독서에 새로운 경지를 열어주었고 광활한 시장 공간을 창조해주었으며 이는 공공문화자원 건설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의 힘을 종합적으로 잘 리용하고 독서자원에 대한 투입과 관리를 강화하며 종이 도서와 전자자원의 상호 보완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독서자원 공유 체계 건설을 진일보 추진하여 광범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독서 수요를 보장하고 건강하고도 다양한 량질의 디지털 독서자원을 보급해 더욱 많은 아이들이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좋은 책은 ‘파문허’ 있게 두어서는 안되며 량질의 내용 공급은 혁신적인 보급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 가상 커뮤니티, 인터넷 생방송, 도서장터 등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을, 새로운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품질의 열독 내용이 ‘마지막 1킬로미터’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아야 정신적 경지의 승화는 물론 인생의 길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더욱 많은 고품질의 독서 제품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더욱 많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책 속에서 자아를 들여다보고 미지를 탐색하며 더 넓은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해야 한다.

/ 신화시평

‘남들과 다른’ 아동들의 난독증에 관심 기울여야

4월 23일은 ‘세계 독서의 날’이다. 수도의과대학부속북경아동병원(이하 ‘북경아동병원’) 전문가는 난독증 아동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 병원을 찾아온 어린이 심심(가명)은 지력이 정상이고 고시도 많이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1학년이 되었는데도 혼란 글씨를 알지 못했는데 ‘9’(九)라는 단어도 도저히 써내지 못했다. 북경아동병원의 관여 치료를 거쳐 그의 독서 능력은 대폭 제고되었다.

북경아동병원 보건중심 주임이

며 난독증 진단 책임자인 랑예민은 같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가 아는 글자량이 현저하게 적고 받아쓰기를 하면 자주 글자에 필획을 더하거나 줄이며 편방부수가 뒤바뀌거나 좌우 거울모드로 돌아가는 경우, 또는 랑독할 때 자주 글자를 가감하고 단어를 추측한다면 열독 장애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로 과정에 병원·사회·학교·가족이 함께 손잡고 합리적인 관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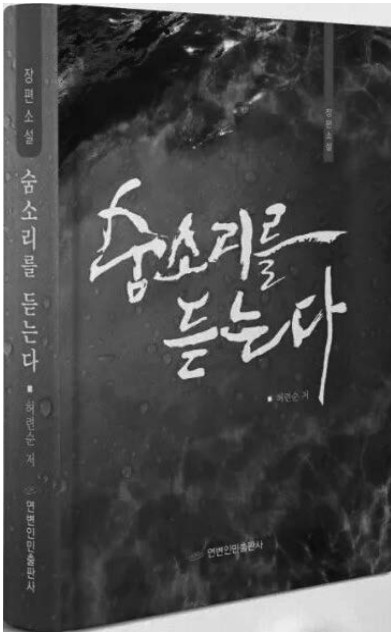
‘세계 독서의 날’ 맞이 추천도서

책은 마음의 양식



독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책은 사람들간의 소통을 돕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공감하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마음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책. 아래에 제 30 번째 ‘세계 독서의 날’을 맞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추천한 소설 작품 3편을 소개한다.



□ 《산이 푸르러 청산이라 하더라》

장편소설 《산이 푸르러 청산이라 하더라》는 조선족 유명 작가 최국철의 또 다른 력작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5편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1950년대부터 1978년후 즉 개혁개방 초기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산이 푸르러 청산이라 하더라》는 부걸라즈촌 농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소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부터 개혁개방까지 거의 30년 동안 부걸라즈촌의 변화와 농민들



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개의 다른 력사적 시기에 농민들이 겪었던 혼란, 방황, 각성, 기쁨을 통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농민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로서 향토 색채가 강하고 스토리가 풍부하며 지역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여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 《숨소리를 듣는다》

허련순작가가 쓴 장편소설 《숨소리를 듣는다》는 한 장의사의 이

야기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김시현은 장의사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어릴 적부터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아 성격이 과파해진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마음의 상처로 중퇴를 하고 만다. 그는 ‘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서’ 죽은 사람과 어울리려 했고 ‘자포자기’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의사로 된다. 결국 김시현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삶과 죽음의 본질을 사고하게 되고 장의사의 가치를 알게 되며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게 된다.

□ 《도화의 북》

리승국작가가 쓴 장편소설 《도화의 북》은 주인공 도화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북치기’를 배워 훌륭한 무용수가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아울러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변방 농촌 젊은이들의 애정, 모동, 리상 등을 통해 다각도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그들의 진취 정신을 찬양하고 변방 소수민족지역 농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족지역의 농경문화, 민속예술 등을 결집함으로써 소설의 품위와 재미 및 예술성을 더하였다.

/ 연변인민출판사